

중세 일본의 외교권*

高銀美**

- | | |
|---------------------|----------------------|
| I. 머리말 | IV. 무로마치시대 초기의 외교 교섭 |
| II. 가마쿠라막부의 외교문제 개입 | V. 맺음말 |
| III. 몽골 침략과 일본의 대응 | |

• 국문초록

가마쿠라시대에는 막부 측이 외교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을 장악하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외교권은 여전히 천황에게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에 반해 무로마치시대에는 막부의 수장인 쇼군이 ‘일본 국왕’에 책봉되는 점을 들어, 가마쿠라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외교관계가 형성된 시대로 평가한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천황에게 있었던 권한조차 쇼군이 흡수해가는 권력집중과정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무로마치시대의 외교방식이 가마쿠라시대의 방식을 기본적으로 계승하는 것이었으나, 중국의 교류 방식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차이점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즉 양자 간의 차이는 천황과 쇼군 간의 권력 구조 변화가 아니라 일본을 둘러싼 주변 지역의 상황이 만들어 낸 것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었다.

다만 쇼군이 외교사절과 접촉하고 답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서 이전처럼 외교 안전을 조정에 보고하는 절차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게 된다. 외교 안전이 막부 관할 내에서 완결되게 되면서 조정은 형식적으로 외교 안전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마저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주제어 : 가마쿠라시대, 무로마치시대, 조정, 막부, 외교권

*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23515).

**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부교수

I. 머리말

일본이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상정하고 그에 부합하지 않는 외교관계는 맺으려고 하지 않으면서, 919년에 내향한 발해 사신을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간의 공식적인 외교관계는 그 후 500여 년간 체결되지 않았다. 즉 隋·唐의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 701년경에는 율령국가를 완성한 일본은 율령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華夷思想도 수용하여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형성하였다. 천황이 화이의 정점에 위치하여 그 지배가 미치지 않는 신라·백제·고구려·발해는 자국의 하위에 있는 蕃國으로, 당은 자국과 대등한 隣國으로 위치 지었던 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역학관계상 실제로는 당에 조공을 바쳤지만, 끝까지 책봉받는 것을 거부하면서 자국과 당은 동등하다는 인식을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관은 당이 몰락한 이후 중국 왕조에 조공도 바치지 않게 되면서 심화되어, 15세기 초에 명의 책봉을 받을 때까지 지속되었다.¹⁾

따라서 919년 이후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자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받아들이지 않는 외국과의 교류를 거부하는 것이었다. 즉 10~12세기에 걸쳐 자국에 도착한 외교 문서에 대한 일본의 대응을 살펴보면, 일단 조정에서 심의하여 자국이 요구하는 외교 관례에 맞지 않는 문서의 경우에는 답신을 보내지 않거나, 사신에게 일본의 입장을 구두로 전달하거나, 보내온 외교문서가 무례하여 조정에 보고할 수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다자이후(大宰府; 규슈에 설치된 일본의 대외관계 담당기관) 명의로 보내거나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²⁾

그러나 이러한 대응은 평화로운 시기에나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과의 무력충돌이 동반되거나 예상되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대외관계는 항상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데, 국가 간의 전쟁이 발생하거나, 실질적인 전투가 없더라도 전쟁의 공포 자체는 존재하거나, 민간의 행동이 국가 간의 긴장을

1) 石井正敏, 『東アジア世界と古代の日本』, 山川出版社, 2003, 5~38면.

2) 『師守記』 貞治 6년(1367) 5월 9일조; 『異国牒狀記』. 양 사료는 왜구 단속을 요구하는 고려의 사신이 1367년 교토에 도착하자, 그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외국의 사신이나 문서가 도착했을 때 과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일본 조정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기록이다. 『異国牒狀記』에 대해서는 이시이 마사토시(石井正敏)가 여러 판본을 비교·검토하여 정정·보완한 논문을 발표하고 있으므로 주로 해당 논문을 참조하였다(石井正敏, 『『異国牒狀記』の基礎的研究』, 『中央大学文学部紀要 史学』 54, 中央大学文学部, 2009).

유발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예를 들어 1220년대에는 규슈(九州)의 주민들이 고려를 침략하는 것이 고려와 일본 간의 현안으로 부상한다. 당시 일본에서는 12세기 말에 처음으로 탄생한 무사 정권인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가 천황의 조정과 병존하고 있었다. 가마쿠라막부는 초기부터 군사·경찰권을 장악하게 되는데, 고려와의 관계에서 주민들을 물리적으로 처벌하고 통제할 필요가 발생하면서 외교문제에도 개입하게 된다. 그리고 가마쿠라막부의 실질적인 외교권 장악이 가장 극적으로 확인되는 것이 몽골과의 교섭과정이다.

그런데도 가마쿠라시대의 외교권에 대한 논쟁에서 자주 확인되는 것은, 막부가 조정에 외국에서 도착한 문서나 사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면 조정은 그에 관한 심의를 진행해서 그 결과를 막부에 전달하는 일련의 과정이 강조되는 점이다. 즉 외교문서 혹은 외교정보의 전달 루트라는 측면에서 외교권은 최종적으로 조정에 있었다는 주장이다. 설령 막부가 조정의 심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정에서 작성한 외교문서를 파기하는 경우에도 여전히 형식적인 외교권은 조정에 있었다는 것이다.³⁾

그에 반해 14세기 전반에 탄생한 무로마치막부(室町幕府)의 경우에는 막부의 수장인 쇼군(將軍)이 ‘일본 국왕’에 책봉되는 점을 들어, 가마쿠라시대와는 질적으로 다른 외교관계가 형성된 시대로 평가된다. 즉 가마쿠라시대와는 달리 형식적인 외교권조차 쇼군에게 수렴된 것으로, 그 배경에는 기존에 천황에게 있었던 권한조차 쇼군이 흡수해가는 권력집중과정에서 발생한 자연스러운 귀결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러나 현재 쇼군이 ‘일본 국왕’에 책봉된 것이 일본 국내적으로 의미가 있었다는 기존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어 있다. 그 보다는 명의 대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의 결과로 정치적인 의미보다는 경제적인 대외 교역권에 주목하는 시각이 일반적이다.⁴⁾

3) 川添昭二, 「中世における日本と東アジア」, 『対外関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1996, 53~54면; 荒木和憲, 「文永七年二月日付大宰府守護所牒の復元-日本・高麗外交文書論の一齣」, 『年報太宰府学』 2, 太宰府市市史資料室, 2008, 6면; 本郷恵子, 『全集 日本の歴史 第六巻 京・鎌倉 ふたつの王権』, 小学館, 2008, 236~237면 등.

4)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의 ‘일본 국왕’ 책봉에 관한 연구사 및 평가에 대해서는 村井章介・橋本雄, 「遣明船の歴史-日明関係史概説」, 『日明関係史研究入門-アジアのなかの遣明船』, 勉誠出版, 2015를 참조하였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외교권을 막부 측이 장악하고 있던 가마쿠라시대와 쇼군이 ‘일본 국왕’에 책봉된 무로마치시대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외교문제에 대한 막부의 주도권 자체는 가마쿠라시대부터 존재하고 있었으나, 무로마치시대에는 대외적인 교류방식이 변화하면서 그 주도권이 ‘일본 국왕’이라는 형태로 표출된 것뿐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측면을 가마쿠라시대부터 무로마치막부 3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満)가 ‘일본 국왕’으로 임명되는 시기까지를 검토하는 것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⁵⁾

Ⅱ. 가마쿠라막부의 외교문제 개입

초기의 가마쿠라막부는 군사·경찰 문제 이외의 조정 정무에 가능한 한 개입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취했다. 이러한 태도는 대외관계에서도 확인된다. 예를 들어 일본인이 중국으로 도항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는데, 다만 성지순례를 목적으로 한 승려는 조정의 칙허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도항이 허가되었으나 칙허 없이 밀항을 시도하는 승려에 대해서는 다자이후가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 1082년까지 확인된다.⁶⁾ 그 후 1170년에 승려 가쿠아(覚阿)는 고시라카와법황(後白河法皇)의 공인하에 송에 건너 갔을 가능성이 있어 여전히 중앙의 관리가 유효했지만, 1187년 이후부터 확인되는 승려들의 왕래에는 다자이후의 관리나 중앙의 관여가 확인되지 않아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⁷⁾ 그리고 그 배경에는 가마쿠라막부의 등장이 있었던

5)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일본 국왕’에 책봉된 시기를 둘러싸고는 1402년 설(田中健夫, 「足利將軍と日本国王号」, 『前近代の国際交流と外交文書』, 吉川弘文館, 1996, 초출 1987, 49~50면; 村井章介,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89면; 村井章介, 「内乱と統一の連鎖-14世紀後半~15世紀前半の日明関係」, 『史友』 40, 青山学院大学史学会, 2008, 15~18면)과 1404년 설(壇上寛,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3, 288~295면)이 존재하는데, 이것은 책봉 과정에 대한 양국 간의 인식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즉 일본 측은 명의 사신이 와서 달력(大統曆)을 하사한 1402년에 책봉된 것으로 판단한 데 반해, 명의 공식적인 책봉은 임명장(誥命)과 金印이 하사된 1404년에 성립한다는 것이다(壇上寛, 같은 책, 295~296면; 橋本雄, 『“日本国王”と勘合貿易』, NHK出版, 2013, 87~90면).

6) 森克己, 「戒覺の渡宋記について」, 『続日宋貿易の研究』, 国書刊行会, 1975, 314면.

7) 榎本渉, 『僧侶と海商たちの東シナ海』, 講談社, 2010, 134~139면.

것으로 판단된다. 즉 조정이 주도하는 출입국 관리가 유지되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막부도 출입국을 관리하려는 의지가 약해서, 12세기 후반에서 13세기 전반에 걸쳐 중앙의 통제를 받지 않는 대외교류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⁸⁾

그러나 이러한 막부의 방침과는 별도로 조정이 군사·경찰 문제 이외의 정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능력이나 의지가 있었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예를 들어 몽골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1271년에 도착한 고려 삼별초의 첩장에 관해 논의한 조정 회의를 살펴보면, 국가의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유학자들의 한문 독해능력을 가늠하는 자리의 성격이 강했고, 삼별초의 첩장이 가지는 정치적 의미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⁹⁾ 가마쿠라막부가 멸망하는 계기를 만든 천황가의 내분과 그에 따른 황위 계승 다툼 역시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막부를 끌어들이는 것은 오히려 천황 측이었다.¹⁰⁾ 막부는 가능한 한 책임지는 사태를 피하려고 기계적으로 교대로 즉위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가마쿠라시대의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서는 조정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정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능력이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긴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하면 막부가 어쩔 수 없이 해당 책임을 떠맡는 방식으로 막부의 권한이 확대되는 경향이 확인된다. 가마쿠라막부가 외교문제에 개입하게 된 배경에도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할 외교문제가 군사적 긴장을 동반하고 있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1220년대에 규슈의 주민들이 고려를 침략하는 것이 고려와 일본 간의 현안이 되면서 막부 측이 대외관계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물론 막부의 기본 방침과 현지에 파견된 막부 측 인물들의 태도가 동일했던 것은 아니어서, 막부에서 파견된 슈고(守護, 무가정권의 군사지휘관)가 쓰시마(對馬)의 대고려 관계에 개입한 것은 1205년경에는 확인된다. 쓰시마와 고려는 1205년 이전부터 조공 형식의 교류인 進奉 관계를 맺어 왕래하고 있었고, 그에 걸맞은 첩장의 형식도 정비되어 있었다. 즉 쓰시마의 사자가 진봉의 예(進奉之禮)에 적합한 문서를 가지고 고려에 건너가 金州(현재의 김해)의 왜관에 머무르면서 金州防禦使에게 외교문서와 예물을 바치면, 금주방어사는 그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진봉의 예에 맞으면

8) 榎本渉, 「宋元交替と日本」, 『岩波講座 日本歴史 第7巻』 中世2, 岩波書店, 2014, 77~80면.

9) 村井章介, 『増補 中世日本の内と外』, 筑摩書房, 2013, 초출 1997, 138면.

10) 近藤成一, 『鎌倉幕府と朝廷』, 岩波書店, 2016, 147~170면.

사신을 접대하지만, 맞지 않으면 조정에 보고하여 그 명령에 따르는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1205년과 1206년의 두 차례에 걸쳐, 쓰시마는 선례를 무시한 침장을 계속 보내 고려로부터 침장의 접수를 거부당하고 있다. 기존의 세력을 대신해 쓰시마의 무역권을 장악한 슈고가 선례를 무시한 교섭을 시도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¹¹⁾

그 후 쓰시마와 고려 간의 진봉 관계는 폐지되지만, 그것으로 쓰시마와 고려 간의 왕래가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고 이전까지의 우호관계를 기반으로 사적인 무역에 종사하는 쓰시마 도민은 여전히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빈틈을 노려 약탈행위를 했기 때문에 1227년에 고려 측은 다자이후에 항의하면서 왜구를 처벌하는 대가로 쓰시마의 선박 한 척이 왕래하며 교역하는 방식 즉 이전의 진봉 관계의 부활을 제안하였다.¹²⁾ 이에 다자이후의 현지 책임자였던 무토 스케요리(武藤資頼)는 약탈행위를 한 쓰시마 도민을 처벌하고 고려에 ‘修好互市’를 요청하였고, 그 결과 진봉 관계가 부활하여 1263년에도 지속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¹³⁾ 이때 부활한 진봉 관계는 일본 측이 1년에 한 번 2척 이내의 선박으로 고려에 와서 무역하는 대신에 왜구를 통제할 것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高麗國慶尚道按察使’와 ‘日本國大宰府守護所’ 간에 문서를 주고받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인다.¹⁴⁾

11) 고은미,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의 쓰시마(對馬)장악과 대고려관계」, 『東洋史學研究』 125, 東洋史學會, 2013, 319면. 당시의 쓰시마 관아의 세력관계 변화에 관해서는 『勘仲記』 弘安 10년(1287) 7월 13일조에 수록된 「對馬守源光經解」를 바탕으로 추론하였다. 필자는 1201~04년경에 쓰시마 관아의 권한에 개입한 세력인 ‘大宰府使’와 ‘守護人’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쓰시마 슈고 측 세력으로 추정하였으나, ‘大宰府使’를 다자이 다이니(大宰大貳; 교토에 있던 다자이후 차관) 후지와라 치카마사(藤原親雅)와 연계된 후지와라 아키요리(藤原秋依)로, ‘守護人’을 다자이후 슈고인 무토 스케요리(武藤資頼)로 추정하는 주장이 제기되었다(荒木和憲, 「中世前期の對馬と貿易陶磁」, 『貿易陶磁研究』 37, 日本貿易陶磁研究会, 2017, 9면). 즉 ‘大宰府使’와 ‘守護人’이 각각 다른 성격의 세력이고, 당시 쓰시마에 슈고는 설치되지 않아 규슈 본토의 다자이후 슈고의 개입을 받았다는 시각이다. 이러한 추정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 쓰시마의 항구를 장악하여 무역선에서 입항세를 징수하고 있는 것은 슈고 세력으로, 그를 기반으로 고려와의 교류에도 진출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있었던 것도 역시 슈고 측으로 판단된다.

12) 近藤剛, 「嘉祿三年來日の高麗使について-「嘉祿三年高麗國牒狀写断簡及按文」の検討」, 『日本高麗關係史』, 八木書店, 2019, 303~318면.

13) 『民經記』 嘉祿 3年(1227) 5월 1日・5월 15日・7월 21日조; 『百鍊抄』 嘉祿 3年 7월 21日조; 『高麗史』 高宗 14年(1227)조・5月조, 元宗 4年(1263) 4月 甲寅조; 『高麗史節要』 高宗 14年 12月조, 高宗 15年 11月조.

14) 高銀美, 「大宰府守護所と外交: 大宰府守護所牒を手がかりに」, 『古文書研究』 73, 日本古文書学

가마쿠라시대의 다자이후는 조정의 영향 하에 놓인 기존의 政廳과 막부의 영향 하에 놓인 슈고쇼(守護所)로 양분되어 있기는 했지만, 양 기관의 수장 자리는 막부에서 파견한 무토 스케요리 이후로 무토씨가 다자이 쇼니(大宰少弐)로 임명되어 대대로 세습하였다.¹⁵⁾ 그런데 이 무토 스케요리가 고려와의 교섭 과정에서 이전과는 다른 형식으로 외교문서를 발급한 것이 ‘大宰府守護所牒’이다. 해당 문서는 쇼군의 명령을 받아 다자이 쇼니가 작성하는 형식의 문서로, 가마쿠라시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문서양식이었다.¹⁶⁾ 이러한 새로운 형식의 문서가 등장하여 고려에 전달된 것 자체가 외교권의 변화를 의미한다.

또한 일본 내에서 외교문서가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외교문서는 1227년에서 1234년 사이에 외교 창구에 해당하는 다자이후에서 직접 조정에 보고되는 루트는 차단되어, 조정은 막부를 경유하여 외교정보를 접하게 되었다. 그 결과, 막부는 정보를 선별해서 조정에 전달하거나 조정에서 결정한 사항을 반복하는 방식을 통해, 외교 문제에 대한 막부의 의사를 관철시켰다.¹⁷⁾ 막부가 대외문제에 개입하는 것은 몽골 침입에 앞서 군사적으로 긴장이 고조된 1260년대 이후라는 주장이 지금도 뿌리 깊지만, ‘大宰府守護所牒’이라는 새로운 외교문서가 등장한 1220년대부터 개입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다자이후 슈고쇼가 중심이 되어 고려와 맺은 정약이 실질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이다. 다자이후 현지의 실질적 지배자였던 무토씨는 고려를 약탈한 사람들을 처벌하고 약탈품을 고려에 돌려주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는데, 이러한 협력은 적어도 1263년까지 확인된다. 따라서 고려의 입장에서 보자면 자국이 요청한 왜구 통제에 협조적이고 그로 인해 자국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해 준 세력이 일본을 대표하는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교류를 맺는 상대국이 교섭 상대로 천황이나 조정에 구애받지 않는 태도는 다음에서 살펴볼 몽골의 경우에도 확인된다.

会, 2012, 5~11면.

15) 石井進, 「大宰府機構の変質と鎮西奉行の成立」, 『日本中世国家史の研究』, 岩波書店, 1970, 초출 1959, 97~99면; 瀬野精一郎, 「鎮西奉行考」, 『鎮西御家人の研究』, 吉川弘文館, 1975, 초출 1961, 36~50면.

16) 高銀美, 앞의 글, 5~11면.

17) 高銀美, 앞의 글, 11~16면.

Ⅲ. 몽골 침략과 일본의 대응

1260년에 고려와 강화조약을 맺은 이후, 몽골 황제 쿠빌라이는 고려와 지리적으로 가까울 뿐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도 형성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에 조공을 촉구하고자 했다. 1266년에 쿠빌라이는 고려왕에게 명하여, 몽골의 사자를 안내하여 일본에 가서 일본 측을 설득하여 몽골에 입조 시킬 책임은 고려왕에게 있고, 파도 때문에 바닷길이 위험하다든지 이제까지 일본과는 통교하고 있지 않다든지 하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경고하고 있다.¹⁸⁾ 여기서 쿠빌라이가 일본과 고려는 통교하고 있어 고려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는 일본을 몽골에 입조 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¹⁹⁾

이때부터 제1차 몽골 침략이 발생하는 1274년까지 몽골 및 고려의 서한이 일본 측에 전달된 사례는 3차례 확인된다.

㉠今年<文永五(1268)>, 正月, 蒙古・高麗牒狀到來, 高麗牒狀使潘阜,

㉡今年<文永六>, 九月, 蒙古・高麗牒狀重到來, 牒狀使全有成・高柔二人也,

㉢今年<文永八>, 十月, 蒙古牒狀重到來, 使趙良弼前々依無返牒, 今度牒者良弼直可傳大將軍, 出案文, 不獻正文, 十二月, 良弼渡使者張鐸於本國, 翌年五月, 張鐸歸來, 高麗牒狀又持來,²⁰⁾

위의 사료는 몽골 및 고려의 서한에 관한 막부 측의 기록인데, 이를 통해 일본 측에 전달된 시기를 기준으로 보면 1266년 8월에 발급된 몽골 황제의 국서와 1267년 9월에 발급된 고려 국왕의 국서가 1268년 정월에(㉠), 1269년 6월에 발급된 몽골 中書省 첩과 1269년 8월에 발급된 경상도안찰사 첩이 1269년 9월에(㉡), 1270년

18) “卿, 其道達去使, 以徹彼疆, 開悟東方, 向風慕義, 茲事之責, 卿宜任之, 勿以風濤險阻爲辭, 勿以未嘗通好爲解,” 『高麗史』 元宗 7년(1266) 11월 癸丑조.

19) 그 때문에 고려가 일본과의 교류를 은폐하기 위해 1268년에 금주에 설치한 일본인을 위한 관사를 파괴하고((1268년)正月日字 高麗國牒狀案, 「尊勝院文書」, 『鎌倉遺文』 13-9845; 이영,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해안, 2011, 초출 1999, 89면), 1272년에는 내항한 일본 선박을 몰래 돌려보내면서(『高麗史』 元宗 13년(1272) 7월 甲子조) 양국 간의 협력관계는 실질적으로 종식되는데, 이후 양국 관계는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친 몽골・고려 연합군의 일본 침략을 거쳐 단절된다.

20) 『鎌倉年代記裏書』.

12월에 발급된 몽골 황제의 국서가 1271년 10월에 전달된 것이 확인된다(㉔).²¹⁾

그중에서 앞의 두 번(㉑·㉒)은 고려 사신이 일본에 건너가 몽골과 고려의 문서를 전달하고 있는데, ㉒의 중서성 첩에는 “너희 일본은 바다 한 구석에 나라를 세우고 한·당 이후로 또한 일찍이 중국과도 통교하였고 고려와도 아주 가깝다. 황제가 전에 고려 국왕에 명하여 그 신하 潘阜를 파견하여 황제의 국서를 가져가 통교하고자 하였으나 일본은 반부를 수개월간 체류시키면서 별다른 답변도 하지 않았다. …… 만일 여전히 험한 지형을 믿고 우리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고 멀어서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황제가 격노하여 출정을 명해 군선 만 척이 가서 왕성을 진압할 것이니 그때 가서는 크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²²⁾라고 기록되어 있다. ㉑의 고려 사신 반부는 다자이후에 거의 5개월이나 억류되어 있다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왔는데²³⁾, 몽골 중서성은 이를 지적하면서 이번에도 일본이 바다라는 지리적 조건을 믿고 몽골의 요구를 우습게 여긴다면 군선을 파견하여 정복할 것이라는 뜻을 명확히 전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조정에서는 원래 몽골과는 일찍이 사람의 왕래도 없었는데 일본이 어떻게 좋고 싫어할 기회가 있었을 것이며 이러한 상황을 살피지도 않고 흥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것에 항의하는 내용의 太政官牒을 작성하여 몽골의 중서성 앞으로 보내려고 했다.²⁴⁾ 그러나 막부에서 답신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면서 중지되었다.²⁵⁾ 이번에도 일본 측 답신을 기다리며 장기간 다자이후 슈고쇼에 체류하

21) 植松正, 「モンゴル国国書の周辺」, 『史窓』 64, 京都女子大学史學會, 2007, 37~39면.

22) “惟爾日本, 國于海隅, 漢唐以來, 亦嘗通中國, 其與高麗寔爲密邇. 皇帝嚮者敕高麗國王, 遣其臣潘阜持璽書通好, 貴國稽留數月, 殊不見答. …… 若猶負固恃險, 謂莫我何, 杳無來, 則天威赫怒, 命將出師, 戰舸萬艘, 徑壓王城, 則將有噬臍無及之悔矣,” 『異國出契』 至元六年(1269)六月日字 蒙古國中書省牒.

23) “반부는 작년 9월 23일에 배를 타고 출발하여 올해 7월 28일에 돌아왔는데, 일본땅에 이르렀으나 이어서 왕경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서쪽의 다자이후에 억류되어 거의 5개월이나 있었는데 대우는 매우 형편없었고 조서를 전달했으나 아무런 답신도 없었다(以前年九月二十三日, 發船而往. 至今年七月十八日回來云, ‘自到彼境, 便不納王都, 留置西偏大宰府者凡五月. 館待甚薄, 授以詔旨, 而無報章.’)” 『高麗史』 元宗 9年(1268) 7월 丁卯조.

24) “抑貴國曾無人物之通, 本朝何有好惡之便, 不顧由緒, 欲用凶器,” 『本朝文集』, 卷67, 贈蒙古國中書省牒.

25) “이번에 연속해서 첩장이 도착했으므로 조정 회의를 열어 返牒을 작성하고 正書하여 返牒에 문제가 없으면 다자이후에 보낼 것을 關東에 전달했으나 關東에서 返牒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고 있던 고려 사신 金有成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되었다.²⁶⁾

이처럼 두 번의 서한 모두에 대해 일본에서 답신이 없자 결사의 각오로 일본에 가겠다고 자원한 인물이 쿠빌라이의 측근이자 女真人이었던 趙良弼이었고, 그의 파견이 몽골 측의 최후통첩에 가까웠다.²⁷⁾ 조양필은 ㉠ · ㉡의 사신들과는 달리 고려가 아니라 몽골에서 파견되어 일본에 건너가 장기간 체류하면서 일본과 교섭했다.²⁸⁾

1271년 9월 19일에 다자이후에 도착한 조양필은 우선 슈고쇼 쇼니 무토 쓰네스케(武藤經資)의 감독하에 놓인다.²⁹⁾ ㉠ · ㉡의 고려 사신과 마찬가지로 조양필 역시

개진하여 返牒은 중지되었다(件度連年牒狀到來之間, 有沙汰, 被清書下, 返牒無相違者, 可遣大宰府之由, 雖被仰合關東, 不可被遣返牒之旨, 計申之間, 被略畢), 『師守記』 貞治6년(1367) 5월 9일조.

26) “1269년 6월 고려의 김유성에게 명하여 잡힌 자들을 돌려보내고 증서성첩도 일본에 전달시켰으나 역시 답이 없었다. 유성은 일본의 다자이후 슈고쇼에 체류한 것이 오래였다(至元)六年六月, 命高麗金有成送還執者, 俾中書省牒其國, 亦不報. 有成留其太宰府守護所者久之), 『元史』 卷208 列傳 95 外夷1 日本. 김유성은 ㉠에는 全有成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고려나 중국 측 사료에는 모두 金有成으로 표기되어 있어 全有成은 金有成의 오기라고 판단된다.

27) “1270년 마침내 조양필을 일본에 사신으로 파견하였다. 이보다 앞서 至元연간(1264~94)의 초기에 수차례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과 통교하고자 하였으나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조양필이 가겠다고 청하자 황제는 그가 늙었다고 가없이 여겨 허락하지 않았으나, 조양필이 고집하자 비서감에 임명하여 가게 하였다(至元七年) 遂以良弼奉使日本. 先是, 至元初, 數遣使通日本, 卒不得要領, 於是良弼請行, 帝憫其老, 不許, 良弼固請, 乃授祕書監以行), 『元史』 卷159 列傳46 趙良弼; 杉山正明, 『モンゴルが世界史を覆す』, 日本經濟新聞社, 2006, 339~343면.

28) 쿠빌라이는 1271년에 대몽골국을 대원국으로 개칭하여 통상 원이라고 칭해지지만, 본고에서는 명칭이 변잡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몽골로 통일하였다.

29) “대몽골국 황제가 파견한 국신사 조양필은 황제의 성지에 따라 일본국과 화평하라는 사명을 받들고 9월 19일에 다자이후에 도착했다. 슈고쇼 쇼니전하가 있어 저지하여 수도에 이르지 못하게 했다. 또한 10여 차례 강하게 국서를 요구하며 특히 국왕 및 대장군에게 바치고자 한다고 했다. 양필도 원래는 주고 싶었으나, 황제의 말씀에 따르면 직접 국왕 및 대장군을 알현했을 때 손수 전달하고, 만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너의 목을 뺄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슈고쇼 쇼니전하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우선 국서의 사본을 전달한다. 이 사본은 한 글자의 차이도 없으니, 만일 한 글자라도 거짓으로 썼다면 이 몸이 찢어져 여기서 죽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양필이 가져온 국서는 직접 국왕 및 대장군을 알현하고 손수 전달할 것인데 만일 사람을 시켜 강제로 뺏는다면 즉시 스스로 목을 찢어 여기서 죽을 것이니 부디 헤아리기 바란다(大蒙古國皇帝差來國信使趙良弼, 欽奉皇帝聖旨, 奉使日本國請和, 於九月十九日, 致大宰府, 有守護所小貳殿, 阻隔不令到京, 又十餘遍, 堅執索要國書, 欲差欲差特上國王并大將軍處者, 良弼本欲付與, 緣緣帝聖訓, 直至見

다자이후 슈고쇼의 감독하에서 일본 측과 교섭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일본 국왕 및 대장군을 만난 자리에서 직접 국서를 전달하라는 황제의 엄명이 있었다며, 국서를 무토 쓰네스케에게 건네지 않고 수도에 올라가 직접 전달하겠다고 양보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 보낸 두 차례의 몽골 측 문서에 대해 일본 측의 답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양필이 직접 일본의 최고 권력층에게 문서를 전달하겠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당시 몽골 측은 일본에 천황도 존재하지만 실권자인 쇼군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셈으로³⁰⁾, 형식적인 군주권과 실질적인 권력이 분리되어 있던 일본의 권력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³¹⁾ 몽골 측은 고려에 대해서도 무신정권의 실권자인 최瑒에게 문서를 보낸 사례가 확인된다.³²⁾ 신분질서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 군주이고 그 만이 대외적인 대표권을 가질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일본 측에 실질적인 대응을 기대하는 몽골은 그 협상 대상으로 특별히 천황이나 조정에 구애받지는 않았던 셈이다. 이러한 상황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1220년대에 고려가 맺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확인되어, 고려 역시 일본 측 협상대상자인 다자이 쇼니의 배후에 조정이 있는지 막부가 있는지에는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國王并大將軍時，親身分付，若與于別人授受，即當斬汝，所以不分付守護所小貳殿，先以將者國書副本，並無一字差別，如有一字冒書，本身萬斷，死於此地，不歸鄉國，良弼所資御寶書，直候見國王并大將軍，親自分付，若使人強取，即當自刎於此，伏乞照鑑，”至元八年(1271)九月廿五日字 蒙古使趙良弼書狀，「東福寺文書」，『鎌倉遺文』14-10884.

30) 杉山正明, 앞의 책, 339~341면.

31) 이러한 정황은 송대에도 확인되어 1172년에는 송의 지방관이 일본 국왕 및 太政大臣에게 예물을 보내고 태정대신에게 접장을 보낸 사례가 확인되는데, 여기서 태정대신은 당시 일본 조정의 실권자였던 타이라노 키요모리(平清盛)를 가리키는 것이었다(『玉葉』承安 2년(1172) 9월 22일조; 『師守記』貞治 6년 5월 9일조; 고은미, 「일송관계(日宋關係)를 통해서 본 송의 대외정책」, 『東洋史學研究』141, 東洋史學會, 2017, 246~247면).

32) “몽골의 하서원수가 사신을 파견하여 서한을 전하고 금선 두필을 보냈다. 그 서한에 영공에게 올린다고 칭하였는데 대개 최우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최우가 수령하지 않고 나는 영공이 아니라며 회안군 王倂에게 보냈다. 왕정 역시 수령하지 않아 왕복하기를 여러 차례 하였다. 최우가 마침내 학사 이규보를 시켜 왕정의 이름으로 답서를 써서 보냈다(蒙古河西元帥遣使寄書, 并送金線二匹. 其書稱令公上, 蓋指崔瑒也. 瑒不受曰, “我非令公.” 以歸淮安公倂. 倂亦不受, 往復久之. 瑒竟使學士李奎報製倂答書以送), 『高麗史節要』高宗 19年(1232) 5月.

그러나 조양필의 상경 요구에도 불구하고 무토 쓰네스케가 여러 차례 국서를 요구하자, 조양필은 일단 국서의 사본을 만들어 건네게 되고 무토 쓰네스케는 이를 막부 측에 전달하고 있다. 이를 전달받은 막부 측의 기록에 따르면 조양필이 직접 대장군에게 문서를 전달하겠다고면서 사본을 제시하고 원문은 바치지 않아 그 사본이 10월에 막부 측에 도착한 것을 알 수 있다(㉔).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조양필이 사자 張鐸을 본국인 몽골에 보내, 다음 해 5월에 다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 고려의 첩장을 다시 가져왔다고도 기록되어 있다.

이와 관련된 고려 측 기록에 따르면 1272년 1월 조양필이 일본에서 돌아와 기록관 장탁을 파견하여 일본 사신 12인을 인솔하여 원에 가게 했고, 고려왕 원종은 통역관 白琚를 파견하여 표를 바쳐 일본이 복종해 온 것을 축하했다고 한다.³³⁾ 고려 측은 장탁이 인솔한 일본 사신을 일본의 조공 사절로 인식했던 것이다. 한편 장탁 및 일본 사신과 함께 조양필도 일단 고려로 돌아왔던 셈인데, 장탁을 배웅한 후 다시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몽골에 파견된 장탁의 행적과 관련해서는 몽골 측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확인된다. 1272년 2월, 몽골의 추밀원에 따르면 일본에 파견했던 조양필이 기록관 장탁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작년 9월 일본인 야시로(彌四郎)³⁴⁾ 등과 함께 ‘太宰府西守護所’에 도착했는데, 그곳 슈고가 말하기를 전에 고려가 몇 번이나 몽골이 일본을 침략할 것이라고 속여왔기 때문에³⁵⁾ 황제가 생명을 소중히 하고 살생을

33) “丁丑, 趙良弼還自日本, 遣書狀官張鐸, 率日本使十二人如元, 王遣譯語郎將白琚, 表賀曰, 『盛化旁流, 遐及日生之域, 殊方率服, 悉欣天覆之私, (後略)』,” 『高麗史』 元宗 13年(1272) 正月조.

34) 이 야시로에 관해서는 조양필이 쓰시마 부근에서 데려온 일본인이라는 주장이 있으나(池内宏,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1931, 102면), 『元史』 日本傳에는 “1271년 9월, 고려왕은 통역관인 별장 徐僞에게 명하여 몽골 사신 조양필을 안내하여 일본에 가게 하였다. 일본이 처음으로 야시로를 파견하여 입조하였으므로 황제가 주연을 베풀고 위로하여 돌려보냈다(至元八年) 九月, 高麗王植遣其通事別將徐僞導送良弼使日本, 日本始遣彌四郎者入朝, 帝宴勞遣之”라는 기사가 보인다. 따라서 그는 몽골에 입조한 인물로 몽골 측은 그를 일본 사신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어디에서 파견된 자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몽골에서부터 조양필과 동행하고 있었다고 판단된다.

35) 이 발언은 조양필이 일본에 오기 직전에 도착한 고려 삼별초의 첩이 몽골이 침략할 것을 알리고 일본에 원군과 병량을 요구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삼별초의 첩에 대해서는 石井正敏, 「文永八年来日の高麗使について-三別抄の日本通交史料の紹介」, 『東京大学史料編纂所報』 12, 東京大学史料編纂所, 1978; 村井章介, 「高麗・三別抄の叛乱と蒙古襲来前夜の日本」,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을 참조하기 바란다.

싫어하여 우선 사신을 파견하여 국서를 보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러나 王京은 이곳 다자이후에서 여전히 멀기 때문에 우선 사람을 몽골 사신과 동행시켜 답하고 싶다고. 그래서 조양필은 장탁과 일본 사신 26인³⁶⁾을 몽골에 보내 황제와의 알현을 요청했다. 황제는 일본 國主의 사신이 와서 슈고쇼를 칭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의심하여 한림승지 和禮霍孫으로 하여금 姚樞·許衡 등에게 하문하게 하였다. 그러자 요추·허형 등이 실로 황제의 생각이 맞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침략할 것이 두려워 사람을 파견하여 우리의 강약을 살피려는 것이니 관대함만 보이시고 알현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대답하였고 황제는 그 의견에 따랐다.³⁷⁾

이 일본 사신에 대해서는 일본의 공식적인 사신이 아니라 다자이후의 사신이었다는 주장이 있다.³⁸⁾ 다자이후 슈고쇼 측에서 왕경은 이곳 다자이후에서 여전히 멀기 때문에 우선 사람을 몽골 사신과 동행시켜 답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고, 쿠빌라이도 그들을 파견한 것이 일본 국주가 아니라 슈고쇼라고 판단했고 한림원의 관리들도 그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그들은 다자이후 슈고쇼가 보낸 사신일 것이다.

이들 일본 사신은 4월에 장탁과 함께 다시 고려로 돌아갔고 고려 측은 康之邵를 시켜 그들을 일본에 귀국시키고 있는데³⁹⁾, 그 과정에서 고려의 첩장이 일본 측에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㉔). 이 고려의 첩장은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㉕의 몽골 중서성 첩과 함께 도착했던 고려의 첩장⁴⁰⁾의 사례를 통해 추정하면, 몽골에 갔던 장탁과 일본 사신이 고려에 도착했으므로 돌려보낸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장탁의 행동과 고려의 첩장이 막부에 보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자이후 슈고쇼 사신 파견은 적어도 막부에는 알려졌다고 보인다. 그와는 달리 ㉔의 사례

36) 사신의 숫자에 대해서는 고려와 몽골 측 사료 간에 차이가 있다.

37) ^(至元) “九年二月，樞密院臣言，『奉使日本趙良弼，遣書狀官張鐸來言，〈去歲九月，與日本國人彌四郎等，至太宰府西守護所。守者云，「曩為高麗所給，屢言上國來伐，豈期，皇帝好生惡殺，先遣行人下示壓書，然王京去此尚遠，願先遣人從奉使回報。」良弼乃遣鐸同其使二十六人至京師求見。〉』帝疑其國主使來云守護所者詐也。詔翰林承旨和禮霍孫以問姚樞·許衡等，皆對曰，『誠如聖算，彼懼我加兵，故發此輩伺吾強弱耳。宜示之寬仁，且不宜聽其見。』從之，”『元史』 208 列傳95 外夷1 日本.

38) 池内宏, 앞의 책, 104면.

39) “경인, 일본 사신이 원에서 돌아왔는데 장탁도 함께 왔다(庚寅, 日本使還自元, 張鐸伴來).”; “갑오, 어사 강지소를 시켜 일본 사신을 보호하여 일본으로 돌려보냈다(甲午, 遣御史康之邵護日本使, 還其國),”『高麗史』 元宗 13년(1272) 4월.

40) 『異國出契』 至元六年(1269)己巳八月日字 高麗國慶尚 晋安東道按察使牒.

중 전반부의 조양필 관련 내용은 조정에 보고되는데 반해, 후반부의 장탁과 관련된 내용은 조정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다자이후 슈고쇼의 사신 파견은 조정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⁴¹⁾ 무토 쓰네스케를 중심으로 한 막부 측은 고려와의 관계처럼 다자이후 슈고쇼 명의를 교류를 통해 몽골과의 전쟁을 회피하려고 시도했던 셈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쿠빌라이의 거부로 실패하였다.

결국 해당 교섭이 실패하면서 양국은 실질적인 무력충돌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1274년과 1281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을 공격한 몽골과 고려 연합군은 정벌에 성공하지 못했고, 이후 몽골 측의 여러 차례의 교섭 시도에도 불구하고 양국 간에 공식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Ⅳ. 무로마치시대 초기의 외교 교섭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1227년부터 1272년까지 다자이후 슈고쇼가 전면에 나서고 그 배후에 막부가 있는 형태로 대외 교섭이 진행된 것이 확인된다. 그러나 14세기가 되면 쇼군이 공식적으로 전면에 나서는 방식으로 전환하게 된다. 머리말에서 언급한 것처럼 쇼군이 ‘일본 국왕’에 책봉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계기 역시 우선은 고려와의 관계에서 비롯되었다.

1366년 고려에서 왜구 단속을 요구하는 사신이 일본에 도착하는데⁴²⁾, 당시 일본은 무사정권인 무로마치막부가 지지하는 북조(천황가의 계통으로는 持明院統)와 천황의 권력 복귀를 지향하는 고다이고천황(後醍醐天皇; 천황가의 계통으로는 大覺寺統) 측인 남조로 나누어 싸우는 내란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366년 8월에 왜구

41) 高銀美, 앞의 글, 14~15면.

42) 왜구 단속을 요구하기 위해 1366년에 고려를 출발한 사신들의 일본 도착과 그에 대한 일본 측의 대응에 관해서는 『大日本史料』 6編, 貞治 6년(1367) 2월 是月・4월 18일・5월 23일・6월 26일조에 관련 사료가 망라되어 있으므로 전반적인 사실 확인은 해당 자료들을 참조하였다. 다만 고려 사신단 김용 일행의 구성원 및 일본 도착 상황에 관한 사료 중 판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異国出契』에 수록된 사료를 통해 보완한 논문(張東翼, 「1366年高麗國征東行中書省の咨文についての検討」, 『アジア文化交流研究』 2, 関西大学アジア文化交流研究センター, 2007)을 참조하였다.

금지를 요청하기 위해 고려를 출발한 金龍 일행은 그 이전부터 왕래하던 규슈가 아니라 처음부터 이즈모(出雲; 현재의 島根県 동부)를 향해 도항하고 있는데, 이것은 당시 규슈가 막부와 대립하는 남조 세력들이 강하다는 사실을 알고 의도적으로 선택한 목적지였던 것으로 판단된다.⁴³⁾ 그렇다면 이것은 고려 측이 왜구의 주된 근거지였던 규슈를 피해 규슈 세력과 대립하고 있던 막부 측과 교섭하기 위한 계획된 행동으로도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이즈모에서 약탈을 당해 예물로 가져온 물품을 빼앗기고 오키(隱岐)를 거쳐 호키(伯耆; 현재의 鳥取県 중부·서부)에 도착했다가, 다음 해 2월 14일에 후쿠하라(福原; 현재의 兵庫縣 神戸市)에 도착하여 지참한 외교문서를 전달했다. 그 후 막부의 명으로 교토 외곽인 사가(嵯峨)의 덴류지(天龍寺)에 체류하게 되었다.

한편 김용 일행과는 별도로 1366년 11월에 같은 목적으로 파견된 金逸 일행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규슈에 도착했다가 상경하여 김용 일행처럼 덴류지로 들어가고 있다.⁴⁴⁾ 이들은 규슈에서도 북조 측 세력권에 도착하여 1367년 2월에는 덴류지에서 김용 일행과 합류하고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파견된 두 사절단이 목적지가 달랐고 해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세력이 달랐다면 고려 측이 처음부터 양쪽 모두와 교섭을 시도했다고도 추정할 수 있다.⁴⁵⁾ 즉 고려는 왜구 금지를 요청하기 위해 당시 규슈에 강한 세력권을 형성하고 있던 남조 측과 그 남조 측과 대립하고 있던 북조 측 모두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왜구 금지를 요청했던 셈이다. 고려는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세력을 찾았던 것으로 특정 세력을 염두에 두고 교섭을 시도하지는 않았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김용 일행이 전달한 고려 측의 문서는 3월 16일에는 막부를 통해 조정에 보고되었다.⁴⁶⁾ 조정은 당초 4월 28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

43) 藤田明良, 「東アジア世界のなかの太平記」, 市沢哲 編, 『太平記を読む』, 吉川弘文館, 2008, 180면.

44) 『高麗史』 恭愍王 15年(1366) 11월 壬辰조; “□日間, 高麗人三十餘人重付嵯峨云々, 凡大勢付筑紫云々,” 『師守記』 貞治 6년 4월 6일조.

45) 고려 공민왕(재위 1351~74)이 몽골제국내 여러 세력들은 물론 반란세력과의 교섭을 가지면서 중국의 정치적 세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려 했던 정황을 감안하면(David Robinson, 水越知訳, 「モンゴル帝国の崩壊と高麗恭愍王の外交政策」, 夫馬進 編, 『中国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07), 일본에 대해서도 대립하는 두 세력 모두에 교섭을 시도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었으나 세 차례 연기된 뒤인 5월 23일에 회의를 열어, 고려의 외교문서가 무례하기 때문에 되돌려 보내고 답서를 하지 않는다는 데 참석자 일동이 동의했다고 한다.⁴⁷⁾ 그러나 실제로는 당시 북조 측이 규슈 지역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해 왜구를 금지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사실대로 답서에 쓴다면 일본 열도에 덕화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되어 후대에 수치를 남기게 될 것이니 안되고, 또한 금지하겠다고 거짓을 기술할 수도 없으니 답신을 보내지 않는 편이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⁴⁸⁾

그러나 조정 회의가 연기되던 와중인 5월 8일에 관파쿠(関白; 천황 보좌역) 니조 요시모토(二条良基)는 서기관인 나카하라 모로시게(中原師茂)에게 외국에서 온 외교문서가 무례하여 답신을 보내지 않기로 했을 때 쇼군의 답서, 혹은 다자이후의 답서나 다자이 쇼니 개인의 답장을 보낸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어, 이미 조정에서 답서를 보내지 않더라도 막부가 답서를 보낼 가능성이 부상했다는 사실이 엿보인다.⁴⁹⁾ 실제로 4월 18일에는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라(足利義詮)가 텐류지에서 고려 사신과 접견했고 5월 19일에는 고려 사신들이 나라(奈良)에 가서 大仏을 관광하고 있어, 조정의 결정과는 무관하게 쇼군 주변에서는 고려에 답서를 보낸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⁵⁰⁾

결국 답서를 보내지 않기로 한 조정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막부 측은 답신을 전달했고, 또 쇼군이 각종 답례품을 고려 사절에게 하사한 후 6월 26일에는 고려 사절이 귀국을 위해 출발하고 있다.⁵¹⁾ 이때 고려에 보낸 답신은 형식적으로는 고려 사절을

46) “牒狀正文，自武家付西園寺進之云々，”『師守記』貞治 6년 5월 23일조.

47) “後聞，不可有返牒之由，一同定申云々，”『愚管記』貞治 6년 5월 23일조; “依無禮，可相廻却之由，
(議) 群義一同候，”『後愚昧記』貞治 6년 5월 23일조.

48) “今度牒狀正宗，本朝人來于高麗，致盜賊・放火・虜掠人民之條，可有制止之由也，而當時本朝之爲
牒，鎮西九國悉非管領，非禁遏之限，仍以實頭欲載牒狀，忽可表王化之不覃，可貽後代本朝之耻，不
(實情) 可有大於是，又可禁遏之由，非可載虛誕，就彼是不可有返牒哉，”『後愚昧記』貞治 6년 5월 23일조.

49) “今夕自殿下以假名御書，被尋問家君云，異國牒狀無禮之時，□返牒之時，將軍返牒，又大宰府返牒，
(二條良基) 小貳私返狀遣之例，可被注進，”『師守記』貞治 6년 5월 8일조; 藤田明良, 앞의 글, 171~172면.

50) 藤田明良, 앞의 글, 172면.

51) “後聞，高麗牒使今日下向云々，於公家者不可有返牒之由雖落居，自武家遣返牒<行忠卿清書云
(世尊寺)

접대한 덴류지의 주지였던 순오쿠 묘하(春屋妙葩)가 선종을 총괄하는 관직인 僧錄 명의로 보내는 개인 서신 형태였지만, 쇼군이 왜구 금지를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한다.⁵²⁾

이처럼 고려의 외교문서가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 기존의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막부 측이 고려 사신과 외교문서를 접수하고 사신들의 거처도 마련하고 있으며, 고려의 외교문서 역시 막부를 통해 조정에 보고되어 조정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조정의 논의나 결론과는 무관하게 막부 측이 독자적으로 해당 안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하고도 있다. 이처럼 외교 안전을 조정에 보고하면서도 막부가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1227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가마쿠라시대와 다른 점이라면 사신과의 접견이나 답서 전달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막부의 수장인 쇼군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의 외교 교섭이 규슈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면서, 규슈에 있던 막부 세력에게 교섭을 위임하지 못하고 교토 주변에서 직접 외교사절과 접촉하고 있는 것이다. 상황 자체만 두고 보자면 군사적으로는 가마쿠라막부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외교사절을 맞이해야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쇼군이 외교 전면에 나선 것은 막부 권력이 일본 사회 전체를 장악하지 못했다는 반증이었던 셈이다.

다만 고려와의 교섭과정에서는 여전히 천황의 신하가 외국과 교섭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쇼군이 직접 답신을 보낼 수 없다고도 언급하고 있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은 자신에게 있지만 형식적인 군주권은 천황에 있다는 기존의 가치관에 구애받고 있는 점 역시 확인된다.⁵³⁾ 그러나 고려 측이 이를 문제 삼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다.

々>, 又大樹賜種々物等於彼牒使云々,”『後愚昧記』貞治 6年 6月 26日조.

52) 中村榮孝, 「『太平記』に見える高麗人の来朝-武家政権外交接收の発端」, 『日鮮関係史の研究上』, 吉川弘文館, 1965, 218-223면; 高橋公明, 「室町幕府の外交姿勢」, 『歴史学研究』 546, 歴史学研究会, 1985, 16-17면; 藤田明良, 앞의 글, 172면.

53) “일본국 쇼코쿠지 주지 승려 모가 삼가 고려국 문화부의 재상 각하들께 답신합니다. 11월 초, 귀국 승려 각주가 와서 재상들의 명을 받아 서신을 일본의 세이다이쇼군(征夷大將軍; 무사의 수장인 쇼군의 정식 명칭)부에 전달했는데, 해적이 여전히 종식되지 않아 양국 간에 틈이 발생하는 것을 타이르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바다 한구석의 백성들이 교화를 파괴하는 것은 실로 우리 군신들이 부끄러워하는 바입니다. 지금 다시 규슈의 신하에게 명하여 적선을 금지시키고 포로를 돌려보내겠습니다. 반드시 양국의 화평을 구비하여 영원히 은인과

고려 측은 실질적으로 왜구를 억제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에 중점을 두고 일본과 교섭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쇼군이 외교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결정권자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천황의 신하를 자칭하는 방식의 외교 교섭은 명과의 관계에서는 통용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일본이 명과 책봉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일본이 명의 책봉을 받는 14세기 후반~15세기 전반은 왜구의 활발하고 광범위한 활동으로 일본의 정치과정과 중국의 정치과정이 밀접하게 연동되는 시기이기도 했다.⁵⁴⁾ 건국 직후의 명에게는 왜구 문제 해결이 구체적인 과제로 등장하였다. 왜냐하면 원말의 반란세력으로 朱元璋에게 패배한 方國珍·張士誠의 잔당이 왜구를 끌어들여 해적행위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명은 처음에는 다자이후를 본거지로 북규슈를 장악하고 있던 고다이고천황의 아들 가네요시친왕(懷良親王)을 1371년 ‘일본 국왕’에 임명하였다. 명의 입장에서는 북규슈를 장악하여 왜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일본 국왕이 될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 국왕’으로 임명하는 명의 사신이 도착하기 직전에 가네요시는 북조 측의 공격을 받아 다자이후에서 퇴각하였다. 그럼에도 명이 황제가 책봉한 가네요시를 공식적인 ‘일본 국왕’으로 인정하고 가네요시가 파견한 사신을 받아들인다면, 규슈를 둘러싼 남북조의 공방은 단순히 일본 내의 세력 다툼에 그치지 않고 ‘일본 국왕’을 둘러싼 싸움으로 의미가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1368년 쇼군직을 계승한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쇼군 명의로 명의 중서성이나 재상과 교섭하고자 시도한다.⁵⁵⁾ 가능하면 이전처럼 군주

우호를 맺는 것은 실로 바라는 바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신하는 예부터 외부와 통교하는 법이 없어 직접 서신에 답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승려 모에게 명하여 대신 경의를 표하게 한 것이니 예를 소홀히 하는 바가 아닙니다(日本國相國承天禪寺住持沙門某, 端肅奉復高麗國門下府諸相國閣下, 仲冬初, 貴國僧覺鑑來, 將諸相國命, 達書于我征夷大將軍府, 諭以海寇未息, 兩國生釁, 此事誠如來言, 海隅民敗壞教化, 實我君臣之所恥也, 今將申命鎮西守臣, 禁遏賊船, 放還俘虜, 必當備兩國之隣好, 冰結二天之歡心, 實所願也, 然而我國將臣, 自古無疆外通問之事, 以是不克直答來教, 仍命釋氏某, 代書致敬, 非慢禮也), 『善隣国宝記』 卷上, 後小松院明德三年(1392)壬申答朝鮮書.

54) 이하 일본과 명의 책봉 관계가 어떤 배경과 과정을 거쳐 맺어지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村井章介, 「「日本国王」の成立-足利義満論」, 앞의 책(주 9); 村井章介, 앞의 글(주 5)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55) “일본국이 승려 宣聞溪·淨業·喜春 등을 파견하여 입조하여 말과 방물을 바치고자 하였으나

명이가 아닌 방식의 교류를 통해 외교 현안을 해결하려고 했던 셈이다. 그러나 명은 군주가 아닌 신하(陪臣)의 외교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하지만 신하에게 외교권이 없다는 기존의 가치관에 구애받지 않는 세력이 규슈 주변에는 상당수 존재했다. 앞에서 언급한 가네요시 친왕은 물론이고, 막부 측이 규슈 장악을 위해 파견한 이마가와 료순(今川了俊)이나 규슈의 배후인 혼슈(本州) 서부지역을 장악한 오우치 요시히로(大内義弘)도 고려 혹은 조선과 독자적인 교류를 가지고 있었다.⁵⁶⁾ 심지어 시마즈 요시히사(島津氏久)의 경우에는 명의 홍무제에게 표문을 바치고 조공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⁵⁷⁾

물론 이들은 쇼군이 중심이 된 막부 측의 움직임으로 1399년경까지 대체적으로 권력을 상실하고 있지만, 향후에도 다른 세력이 조선이나 명과 독자적인 외교관계를 맺는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라도 외교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내외에 천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1401년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准三后道義(道義는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법명)’ 명의로 명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 일본의 국권을 장악한 사실을 알리며 조공하였고⁵⁸⁾, 명의 황제가 그를 ‘일본 국왕’에 임명하면서 중국이 인정하는

명하여 이를 물리쳤다. 당시 일본은 持明과 良懷가 대립하고 있었는데, 宣聞溪 등은 그 신하의 서신을 중서성에 전달했으나 표문이 없어 황제가 명하여 그 조공을 물리쳤다(日本國, 遣僧宣聞溪・淨業・喜春等來朝, 貢馬及方物, 詔却之, 時日本國持明與良懷爭立, 宣聞溪等齎其國臣之書, 達中書省, 而無表文, 上命却其貢), 『明太祖實錄』 洪武 7년(1374) 6월 乙未조; “일본국이 승려 明悟・法助 등을 파견하여 방물을 바치려고 하였으나, 표문은 없고 단지 일본의 정이자군 源義滿이 승상에게 보내는 서신만을 가져왔는데 그 내용이 오만하여 황제가 명하여 그 조공을 물리쳤다(日本國, 遣僧明悟・法助等來, 貢方物, 無表, 止持其征夷將軍源義滿奉丞相書, 辭意倨慢, 上命却其貢), 『明太祖實錄』 洪武 13년 9월 甲午조.

56) 村井章介, 앞의 책(주 5), 87-88면; 川添昭二, 「九州探題今川了俊の対外交渉」, 『対外関係の史的展開』, 文献出版, 1996; 須田牧子, 「朝鮮王朝一室町政權間外交の成立と大内氏」, 佐藤信・藤田寛編, 『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 山川出版社, 2007; 張東翼, 「14世紀의 高麗와 日本의 接觸과 交流」, 『대구사학』 100, 대구사학회, 2010, 119면.

57) “이때 일본의 신하로 志布志에 근거지를 둔 시마즈 우지히사가 또한 승려 道幸을 파견하여 표를 바치고 말과 차・포・칼・부채 등의 물건을 헌상하고자 하였으나, 황제는 우지히사가 본국의 명령도 없이 사적으로 입공하였다며 명하여 물리쳤다(是時, 其臣有志布志島津越後守臣氏久, 亦遣僧道幸等進表, 貢馬及茶布刀扇等物, 上以氏久等無本國之命而私入貢, 仍命卻之), 『明太祖實錄』 洪武7년 6월 乙未조.

58) “일본의 准三后 道義가 서신을 대명 황제폐하께 올립니다. 일본국은 성립 이래로 상국에 조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道義가 운 좋게 국권을 장악하여 국내에 걱정이 없으니 특히 옛 규범에

공식적인 외교권을 가진 쇼군이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명으로부터 ‘일본 국왕’에 임명된 아시카가 요시미쓰는 조선에 대해서도 더 이상 승려를 개입시키지 않고 ‘일본 국왕’ 명의로 교류하게 된다(1404년).⁵⁹⁾

이러한 ‘일본 국왕’ 책봉을 둘러싸고는 일본 국내적으로 정치적 의미는 없었고 경제적·문화적 의미만 있었다는 극단적인 평가도 존재한다.⁶⁰⁾ 그러나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천황가 일족에 준하는 ‘准三后’의 칭호를 획득한 1383년, 혹은 남북조가 통합을 이룬 1392년이 아니라 자신에 대항할 수 있는 마지막 무장세력이었던 오우치 요시히로를 물리친 1399년 이후에야 일본의 국권을 장악했다고 명언하는 서한을 명 황제 앞으로 보낸 것 자체가 정치적 선언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것은 아시카가 요시미쓰를 ‘일본 국왕’에 책봉한 명 국내의 상황과도 연동되는 것이었다. 명 역시 황제의 지위를 둘러싸고 조카(建文帝)와 삼촌(永樂帝)이 대립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양국 간의 공식적인 조공-책봉 관계 성립은 내부적으로 자신들이 장악한 권력을 외부적으로 공인받는 측면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단순히 교토 주변의 조정 관료나 선승들이 보였던 비판을 근거로 내부적 권위 형성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것은 일면적이다. 명 사신을 접견하는 의례가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법회를 열 때 참가하던 고정멤버만 참가하는 가운데 열리고 ‘일본 국왕’이라는 명칭이 일본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쇼군의 명의를 빌려야 대명 교류나 대조선 교류가 가능하다는 사실이 변하지는 않는다. 대외교류에 강한 관심을 가진 세력들이 쇼군이 국내적으로 ‘일본 국왕’ 호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가 가진 대외교류의 권한과 그를 통한 정치적 구심점을 의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은

따라 사신 肥富에 祖阿를 팔려 보내 통교하고 방물을 헌상합니다(日本准三后道義, 上書大明皇帝陛下, 日本國開闢以來, 無不通聘問於上邦, 道義幸秉國鈞, 海內無虞, 特遵往古之規法, 而使肥富, 相副祖阿, 通好, 獻方物), 『康富記』應永 8년(1401) 5월 13일조; 『善隣國寶記』卷中, 應永八年조.

59) 高橋公明, 앞의 글, 26면; 田中健夫, 앞의 글, 50면. 이러한 요시미쓰의 행동에 대해 굳이 쓸 필요도 없는 ‘일본 국왕’이라는 호칭을 조선에 향해서도 사용했다고 평가하는 의견도 있다(橋本雄, 「室町幕府外交の成立と中世王權」, 『歴史評論』 583, 歴史科学協議会, 1998, 19면). 그러나 쇼군 명의로도 외교 안건을 처리할 수 있었던 조선에 대해서조차 굳이 ‘일본 국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것 자체가 오히려 외교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내외에 천명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조선과의 외교권이 분산되어 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60) 橋本雄, 「室町殿の《中華幻想》-足利義満・義持期を中心に」, 『中華幻想-唐物と外交の室町時代史』, 勉誠出版, 2011; 橋本雄, 앞의 책(주 5), 75~87면.

단선적이다. 일시적으로 명과의 교류를 중지한 4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노리(足利義教) 때에도 일단 명의 책봉을 받은 후에 조공을 중지한 것 역시 대외 교류권이 다른 세력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존재하는 셈이다.

따라서 쇼군이 ‘일본 국왕’을 칭하며 외교의 전면에 나선 배경에는 陪臣의 외교라는 형식을 취할 경우, 일본 내의 다른 무장세력들 역시 쇼군과 같은 외교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판단된다.⁶¹⁾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일본 내에서 쇼군에게 권력이 집중된 결과 ‘일본 국왕’에 책봉된 것이 아니라, 그와는 반대로 일본 내에서 권력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라도 ‘일본 국왕’에 책봉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쇼군이 외교사절과 접촉하고 답서를 전달하는 등 외교의 전면에 나서게 되면 서, 이전처럼 외교 안건을 조정에 보고하는 절차는 더 이상 확인되지 않게 된다. 외교 안건은 막부 관할 하에서 외교문제를 담당하는 선승이나 관료들 내에서 처리되어, 그들이 사신을 접대하고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외국에 보낼 예물까지 감독하였다.⁶²⁾ 또한 그 결과는 쇼군의 최종 허가를 받고 명이나 조선에 전달되었다고 한다. 이로써 조정은 형식적으로 외교 안건에 대해 심의하는 기능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한편 중국 측이 일본 측에 ‘일본 국왕’ 이외의 교섭을 허용하지 않은 것 역시 당시 명 조정이 중국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은 이전과 같은 자유로운 교류가 지속되면 해안 지역을 제대로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서, 명 조정이 인정하는 세력 이외에 외부와의 교류를 차단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10세기 이후 상대적으로 자유로워진 교류를 통해 해상세력이 성장하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해상세력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이처럼 명의 대외정책을 변화시키고 고려 조정이나 무로마치막부가 외국과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에는 명, 고려, 일본을 무대로 활동하던 해상세력 특히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던 왜구 세력이 있었다. 이제 해상을 둘러싼 국가 중 일방의 통제만으로는 해상세력을 제어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던 셈이다. 해상이

61) ‘일본 국왕’ 책봉이 가지는 의미를 서국 다이묘(大名)나 북조 조정을 배제하고 막부가 대명 무역을 독점하는데 있었다는 주장도 있다(村井章介, 「易姓革命の思想と天皇制」, 『中世の国家と在地社会』, 校倉書房, 2005, 초출 1995, 237면).

62) 橋本雄, 「『遣朝鮮国書』と幕府五山-外交文書の作成と発給」, 『日本歴史』 589, 日本歴史学会, 1997.

그를 둘러싼 모든 국가들의 협력 없이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일본의 권력자 역시 해상통제를 수행하는 대가로 주변 국가들과 교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군주가 대외교류를 독점하는 조공무역체제로의 회귀는 국가가 강력해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이 함께 강력한 통제를 실시해야만 관할 지역 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정도로 해상세력이 강력해진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쇼군이 외교에 전면에서 나서면서 ‘일본 국왕’에 임명되기에 이르자 이에 대한 반발이 막부의 외부는 물론 내부에도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⁶³⁾ 반발의 핵심은 선례에 어긋난다는 점에 있었는데, 이 선례에 어긋난다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다. 첫째는 천황이 가진 외교권을 천황의 신하인 쇼군이 찬탈했다는 점, 둘째는 황제의 책봉을 받아 일본을 중국의 하위에 위치 지었다는 점이었다. 그중에서도 비난은 쇼군이 황제의 신하가 되었다는 점에 집중되었다. 이것으로 일본이 율령 제도를 받아들이면서 형성한 국제질서에 대한 관념 즉 중국은 자국과 동등하고 한반도는 자국보다 하위에 있다는 세계관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명백히 일본이 중국의 하위에 서는 국제질서를 받아들인 것은 5세기의 왜 5왕 이후로 거의 900여 년만의 일이었다.

실제로 앞에서 언급한 가마쿠라시대의 교섭방식은 군주 간의 상하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고 동등하다고 판단되는 기관 간의 교섭을 통해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었다. 중국식 정치질서의 영향을 받은 모든 국가들이 공유하고 있던 화이관과 충돌하지 않는 방식의 교류였던 셈이다. 그러나 이전과는 달리 명은 그러한 방식의 교류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은 명이 국가기관의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 않는 해상 교류를 용인하기에는 해상세력에 대한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했다는 데 기인한다. 해상을 강하게 통제한 대가로 명은 송·원이 교역을 통해 충당하던 상당 부분의 재원을 포기하고 토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야 했다.⁶⁴⁾ 그러나 해상 교류를 통제하고 육지를 중심으로 강하게 관리하는 방식은 정권의 일원적인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

63) 田中健夫, 앞의 글, 51면; 村井章介, 앞의 글(주 61), 237면; 橋本雄, 앞의 책(주 5), 75~87면.

64) 上田信, 『海と帝国 明清時代』, 講談社, 2005, 90~105면.

V. 맺음말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가 주변 지역과 교섭을 맺으려고 할 때 해당 지역의 공식적인 군주와만 교류를 맺으려고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외교 문제를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 840년 淸海鎮大使로 활동하고 있던 장보고가 일본 조정에 조공하고자 하였으나 일본 측이 신라왕의 신하인 장보고에게는 외교의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한 사례⁶⁵⁾가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각 지역의 군주는 공식적인 군주 간의 관계만 고집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과 교섭을 시도하는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가 중요하지 해당 사회 내에서 누가 형식적인 군주인지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형식적인 군주가 실질적인 지배권자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외교 문서는 처음에는 형식적인 군주인 왕 앞으로 작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교섭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실질적으로 이행하는 세력이 확실해지면, 해당 세력과의 교섭을 통해 양국 간의 문제를 처리하게 된다. 앞에서 언급한 ‘高麗國慶尚道按察使’와 ‘日本國大宰府守護所’ 간의 외교 교섭이 그러한 사례이다.

이러한 처리 방식을 교섭 당사자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군주 간의 상하관계를 확정하는 등의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면서 상대국과의 현안을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한 교류방식이 10~14세기의 동아시아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했고, 각각의 국가는 자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공유하면서도 상호 간에 충돌 없이 교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명이 출현하여 군주 간의 교류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이전과 같은 방식의 교류는 불가능해졌다. 일본도 자국 내의 권력관계는 물론 중국과의 상하관계를 공식화하지 않으면 명과 교류할 수 없었고, 쇼군은 ‘일본 국왕’에 책봉되었다.

이처럼 국가가 대외교류를 독점하는 방식으로 회귀했다고 하면, 해상세력을 통제할 정도로 강력해진 국가 기관이 10세기 이후 대외교류에 참가했던 다양한 지역이나 세력을 다시 국가 내로 편입시켰다는 의미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해석은 일본이 명의 책봉을 받는 사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기본적으로 양국의 권력자가

65) “爲人臣無境外之交,” 『続日本後紀』 承和 7年(840) 12月 己巳조.

국내에서 권력을 집중시켜 나간 결과 대외교류까지 독점하게 되었다는 식으로 설명된다. 이것은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일본 국왕’ 책봉이 가지는 일본 내에서의 의미를 상대화하려는 평가가 제시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확인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중앙 권력을 상대화하려는 해상세력을 비롯한 여러 세력들의 원심력을 약화시키고 중앙 권력의 구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군주 간의 일원적인 교류라는 방식이 부활된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조공무역체제는 해상을 둘러싼 모든 국가가 그 내부 통제에 성공하여 주변 지역과의 교류를 독점할 수 있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유효한 시스템으로, 일단 그중 일부라도 내부적으로 통제가 이완되기 시작하면 그 파급효과가 해당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성격을 가지게 된다. 16세기 중반에는 활발해지는 중국 연안의 밀무역은 결국 이러한 이완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에는 중앙의 통제를 벗어난 다양한 지역이나 민족의 해상세력이 참여하게 된다.

투고일: 2021.01.31

심사일: 2021.03.02

게재확정일: 2021.03.19

참고문헌

- 『高麗史』, 『高麗史節要』
『明太祖實錄』, 『元史』
『異國出契』, 『異國牒狀記』, 『鎌倉遺文』, 『鎌倉年代記裏書』, 『勘仲記』, 『玉葉』, 『愚管記』, 『後愚昧記』, 『善隣国宝記』, 『続日本後紀』, 『大日本史料』, 『百鍊抄』, 『本朝文集』, 『民經記』, 『師守記』, 『康富記』
- 이 영, 『왜구와 고려·일본 관계사』, 혜안, 2011, 초출 1999
池内宏, 『元寇の新研究』, 東洋文庫, 1931
石井正敏, 『東アジア世界と古代の日本』, 山川出版社, 2003
上田信, 『海と帝国 明清時代』, 講談社, 2005
榎本渉, 『僧侶と海商たちの東シナ海』, 講談社, 2010
近藤成一, 『鎌倉幕府と朝廷』, 岩波書店, 2016
杉山正明, 『モンゴルが世界史を覆す』, 日本経済新聞社, 2006
壇上寛, 『明代海禁=朝貢システムと華夷秩序』, 京都大学学術出版会, 2013
橋本雄, 『中華幻想-唐物と外交の室町時代史』, 勉誠出版, 2011
_____, 『“日本国王”と勘合貿易』, NHK出版, 2013
本郷恵子, 『全集 日本の歴史 第六巻 京・鎌倉 ふたつの王権』, 小学館, 2008
村井章介, 『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 校倉書房, 1988
_____, 『増補 中世日本の内と外』, 筑摩書房, 2013, 초출 1997
- 고은미, 「가마쿠라막부(鎌倉幕府)의 쓰시마(對馬)장악과 대고려관계」, 『東洋史學研究』 125, 東洋史學會, 2013
_____, 「일송관계(日宋關係)를 통해서 본 송의 대외정책」, 『東洋史學研究』 141, 東洋史學會, 2017
張東翼, 「14世紀의 高麗와 日本의 接觸과 交流」, 『대구사학』 100, 대구사학회, 2010
- 荒木和憲, 「文永七年二月日付大宰府守護所牒の復元-日本・高麗外交文書論の一齣」, 『年報太宰府学』 2, 太宰府市市史資料室, 2008
_____, 「中世前期の対馬と貿易陶磁」, 『貿易陶磁研究』 37, 日本貿易陶磁研究会, 2017
石井進, 「大宰府機構の変質と鎮西奉行の成立」, 『日本中世国家史の研究』, 岩波書店, 1970, 초출 1959

- 石井正敏,「文永八年来日の高麗使について-三別抄の日本通交史料の紹介」,『東京大学史料編纂所報』12,東京大学史料編纂所,1978
- _____,『『異国牒状記』の基礎的研究』,『中央大学文学部紀要 史学』54,中央大学文学部,2009
- 植松正,「モンゴル国国書の周辺」,『史窓』64,京都女子大学史学会,2007
- 榎本渉,「宋元交替と日本」,『岩波講座 日本歴史 第7巻』中世2,岩波書店,2014
- 川添昭二,「中世における日本と東アジア」,『対外関係の史的展開』,文献出版,1996
- 高銀美,「大宰府守護所と外交: 大宰府守護所牒を手がかりに」,『古文書研究』73,日本古文書学会,2012
- 近藤剛,「嘉禄三年来日の高麗使について-「嘉禄三年高麗国牒状写断簡及按文」の検討」,『日本高麗関係史』,八木書店,2019
- 須田牧子,「朝鮮王朝一室町政権間外交の成立と大内氏」,佐藤信・藤田寛 編,『前近代の日本列島と朝鮮半島』,山川出版社,2007
- 瀬野精一郎,「鎮西奉行考」,『鎮西御家人の研究』,吉川弘文館,1975, 2016
- 高橋公明,「室町幕府の外交姿勢」,『歴史学研究』546,歴史学研究会,1985
- 田中健夫,「足利将軍と日本国王号」,『前近代の国際交流と外交文書』,吉川弘文館,1996, 2017
- 張東翼,「1366年高麗国征東行中書省の咨文についての検討」,『アジア文化交流研究』2,関西大学アジア文化交流研究センター,2007
- David Robinson, 水越知 訳,「モンゴル帝国の崩壊と高麗恭愍王の外交政策」,夫馬進 編,『中国東アジア外交交流史の研究』,京都大学学術出版会,2007
- 中村孝栄,「『太平記』に見える高麗人の来朝-武家政権外交接収の発端」,『日鮮関係史の研究 上』,吉川弘文館,1965
- 橋本雄,「遣朝鮮国書」と幕府五山-外交文書の作成と発給」,『日本歴史』589,日本歴史学会,1997
- _____,「室町幕府外交の成立と中世王権」,『歴史評論』583,歴史科学協議会,1998
- 藤田明良,「東アジア世界のなかの太平記」,市沢哲 編,『太平記を読む』,吉川弘文館,2008
- 村井章介,「高麗・三別抄の叛乱と蒙古襲来前夜の日本」,『アジアのなかの中世日本』,校倉書房,1988
- _____,「易姓革命の思想と天皇制」,『中世の国家と在地社会』,校倉書房,2005, 2015
- _____,「内乱と統一の連鎖-14世紀後半~15世紀前半の日明関係」,『史友』40,青山学院大学史学会,2008
- 村井章介・橋本雄,「遣明船の歴史-日明関係史概説」,『日明関係史研究入門-アジアのなかの遣明船』,勉誠出版,2015
- 森克己,「戒覚の渡来記について」,『続日宋貿易の研究』,国書刊行会,1975

Diplomatic Authority in Medieval Japan

Go, Eun-mi

In the Kamakura period, it is assumed the shogunate held the de facto decision-making authority over diplomacy, while formal diplomatic authority ostensibly remained in the hands of the Japanese emperor. On the other hand, in the Muromachi period, there was a qualitative difference in the way in which foreign relations were established in comparison to the Kamakura period, given that the shogun, as the head of the military government, was referred to as the "king of Japan". This change occurred against the backdrop of the centralization of power in which even some powers held by the emperor were absorbed by the shogun.

However, this paper contends that, although Japan's diplomatic direction in the Muromachi period fundamentally succeeded that of the Kamakura era, there were differences that arose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hanges in China's style of foreign relations. Thus, this paper places emphasis on the fact that the difference between two periods was caused due to circumstances in the region surrounding Japan, rather than changes in the internal power structure of Japan.

In the latter era, however, the previous practice of reporting diplomatic issues to the Japanese imperial court was no longer identified, as the shogun came to the front of diplomacy and took on roles such as meeting diplomatic envoys from other countries and conveying official diplomatic responses. This implies that Japan's diplomatic agenda was completely handled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shogunate, thus leading to the loss of the Japanese imperial court's nominal function of deliberating on diplomatic issues.

Key Words : Kamakura period, Muromachi period, Court, Shogunate, Diplomatic authority

